

책사랑·꿈키움 영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책사랑·꿈키움 영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

●● 본 그림책 놀이 교사지원자료의 집필방향

그림책은 영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다가가기 쉽고, 친숙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림책이 '읽어주는 활동'으로만 머무르거나, 놀이 주제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적 읽기'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책을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언어와 시각 예술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교사와 유아는 그림책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진정한 독자**가 됩니다.



지금은 도구적 읽기에서 벗어나, **독자로서의 유아를 존중하는 관점 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유아가 그림책 속 세계를 마음껏 해석하고 확장하며 스스로 문학적 의미를 빚어낼 수 있도록, **교사**는 **그림책의 문학과 예술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책사랑·꿈키움 영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그림책 놀이 교사지원자료 3종을 마련했습니다.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는 능동적 독자로서 유아와 그림책을 바라보는 이론적·실천적 관점을 도울 수 있는 자료이며,

2권 그림책 추천 및 소개자료 『함께 읽고 싶은 그림책을 나누다』는 시각적 예술성이 뛰어난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소개하여 교사의 도서 선택 역량을 돕고,

3권 그림책 놀이 실행자료 『그림책과 대화하는 교실을 꿈꾸다』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철학을 기반으로 그림책과 대화하며 놀이하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영유아교사의 실천적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세 권의 교사지원자료에는 교실 속에서 교사와 유아가 그림책을 매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놀이가 되고, 어떻게 의미가 피어나는지에 대한 **집필진의 깊은 성찰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라, **교사학습공동체**가 함께 읽고 토론하며 자라나는 **‘배움의 여정’**을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본 그림책 놀이 교사지원자료 3종이 **영유아교사 여러분의 손에** 늘 가까이 머물며 **그림책과 함께 하는 새로운 배움과 실천의 여정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실 곳곳에서 그림책과 대화하고, 그림책으로 놀이하며, 그림책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

들어가며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에서는 영유아교사가 능동적인 독자로서 교사와 유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교육적 관점을 형성하고, 그림책에 대한 기초 이론 및 그림책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는 영유아교사가

- 그림책을 즐기는 능동적 독자로서 교사와 유아를 이해하고,
- 그림책의 글과 그림, 시각적 텍스트, 물성, 파라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 그림책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 곳곳에 제시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교사 연수 및 학습공동체에서 그림책과 유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논의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사지원자료를 통해 영유아와 그림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그림책, 유아, 독자로서의 교사를 만나보기 바랍니다.

제1장

그림책 읽기에서 만난 독자로서의 교사와 유아

- | | |
|-------------------|-----|
| 01 · 독자로서의 교사 | 008 |
| 02 · 독자로서의 유아 | 016 |
| 03 · 교실 해석공동체 만들기 | 028 |

제2장

그림책 안과 밖 넘나들기

- | | |
|-------------------|-----|
| 01 · 글과 그림의 관계 | 040 |
| 02 · 그림책의 시각적 텍스트 | 052 |
| 03 · 그림책의 물성 | 076 |
| 04 · 그림책의 파라텍스트 | 086 |

제3장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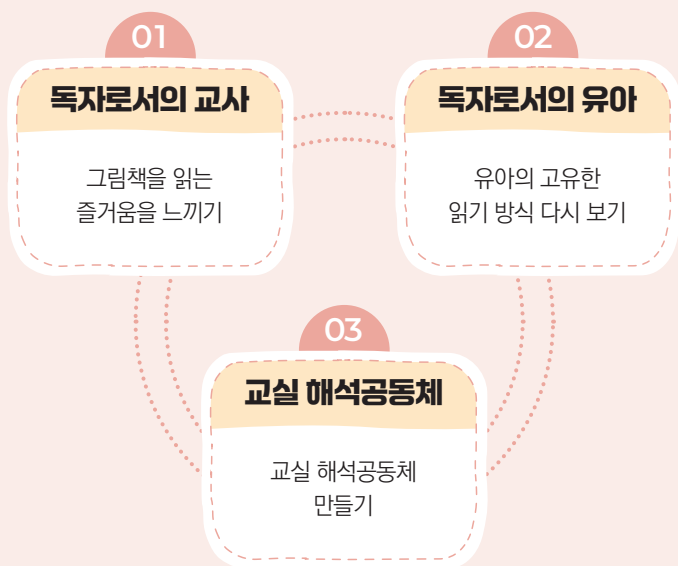
- | | |
|----------------------------|-----|
| 01 · 일곱 가지 교사의 역할 | 108 |
| 02 · 김 교사의 그림책 대화 깊이 들여다보기 | 144 |

제1장

그림책 읽기에서 만난 독자로서의 교사와 유아



1장에서는 그림책 읽기의 주체인 독자로서의 교사와 유아를 살펴보고, 그림책 읽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한 교사와 유능함을 드러내는 유아가 함께 의미를 구성하며 ‘교실 해석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을 통해 교사는 유아의 그림책 읽기를 보다 풍부한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유아의 반응을 존중하며,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교실 해석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여러분은 독자로서 그림책 읽기를 즐기시나요?

네, 당연하죠!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림책을 찾아요.
어른들에게도 위로를 건네는 것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 꼭 빠지게 돼요!

솔직히 즐긴다는 말은 좀
어렵고요. 저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는
의무감으로 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백희나 작가님께
꼭 빠진 이후로, 그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에
그림책 읽기가 즐거워졌어요!

백희나 그림책에서 찾은 추억과 감동

저는 백희나 작가님께 폭 빠진 이후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에
그림책 읽기가 즐거워졌어요!

『구름빵』이나 『알사탕』 같은
그림책들을 그저 수업 자료로만 본 적도 있죠.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글·그림
| 스토리보울

그런데 어느 날,
『장수탕 선녀님』을 읽으며 엄마와 함께 목욕탕을 다니던 어린시절이 떠올랐어요.
내 손을 잡아주던 엄마의 따뜻한 온기,
목욕탕의 따뜻하면서도 쿼퀴한 그 특유의 냄새,
장수탕 선녀님처럼 앉아서 몸을 녹이던 할머니의 모습,
요구령의 시원하고 달달한 맛까지...

그때부터 교사가 아닌 독자로서 작가님의 그림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사탕』 책에서 발견되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
백희나 작가님 그림책 속의 인형 하나하나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흙의 질감과
우스꽝스러운 표정들.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이제야 저는 비로소 ‘독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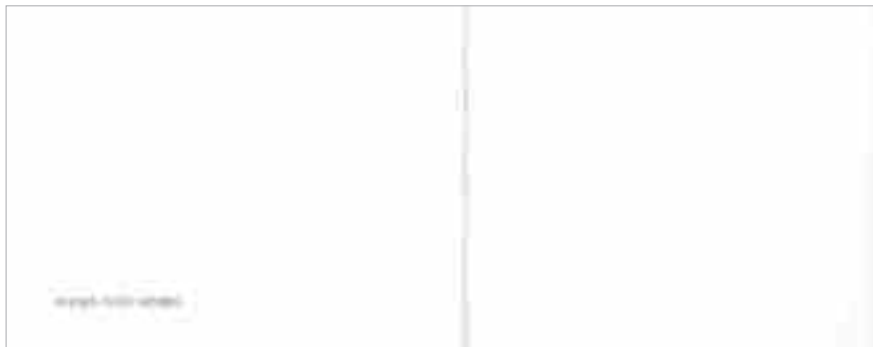
김 교사가 『장수탕 선녀님』 그림책을 읽고 쓴 저널 중에서...

한 명의 그림책 독자가 되어보기



교사가 한 명의 독자로서 그림책을 마주할 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눈에 스치는 색깔 하나,
종이 위에 펼쳐진 글과 그림의 섬세한 배치,
그림 속 등장인물의 미세한 표정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림책은 의도적으로 ‘빈자리’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글·그림, 강무홍 역 | 시공주니어

그 빈자리,

여백,

숨겨진 장면에

독자가 자신만의 해석과 상상력으로 채워 넣을 때,
그림책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림책을 우리의 삶과 연결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책을 단지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림책은 어린이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오래된 편견을 내려놓고,

교사 스스로 그림책을 읽으며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는 하나의 독자임을 인정할 때

의미 있는 그림책 읽기는 시작됩니다.

●●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선: 도구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우리는 그림책을 문학으로 받아들이며, 독자로서 즐겁게 읽고 있었을까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 그림책을 교실로 들고 오는 맥락을 살펴보면,

그 목적이 순수한 문학적 즐거움보다는

수업의 도구나 자료에 치우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의 시작과 확장을 위한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되는 것.

‘이 그림책은 사회성 발달에 유용하다’

‘이 책을 활용해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처럼,

그림책이 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할 때,

그림책,

그 본래의 문학적 가치는

빛을 잃습니다.



그림책을 도구나 수단으로서만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은
교사의 그림책 읽기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그림책을 읽는다면,
그 무미건조한 태도는 유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교실의 읽기 경험 전체를
삭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그림책 독자로서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때,
비로소 유아 독자의 다채로우면서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반응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즉, 우리는 그림책을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삶의 진솔한 이야기와 예술적 가치를 담은 문학 작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교사가 그림책을 문학적 경험으로써 받아들인다는 것은,
책을 펼치는 순간 교사로서의 목적 의식을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 속으로 뛰어드는 ‘독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자, 나의 '인생 그림책'을 가져와 볼까요.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림책을 소개하고,
내가 이 책을 인생 그림책으로 꼽은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소개한 인생 그림책을 듣고 나서,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림책이 생겼나요?
선생님은 어떤 그림책을 읽어보고 싶어졌나요?

“

Q 그림책을 읽을 때 교사인 나는 발견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유아들의 뜻밖의 발견이나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배경처럼 지나쳤던
부분에서 유아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책 속의 다름 장면을 보면서
유아가 얼마 전 친구와의 실제 다툼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림책에 자신의 경험을
끌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 속에서 반복되는 글이나 그림을
유아가 먼저 찾아내고, "선생님, 이 다음은
이게 나올 거예요!"라며 예측할 때,
유아가 이미 이야기의 리듬을
읽고 있다는 점에 놀랐어요.



『고구마구마』
사이다 글·그림 | 킨더랜드

『고구마구마』 그림책을 교사인 제가 먼저 읽었을 때,
유아들이 고구마 모양과 이름의 관계성에 주목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아들과 함께 읽으니,
유아들은 아주 작은 고구마에 관심을 더 갖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작은 고구마가 장면마다 계속 등장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책장을 넘길 때마다
유아들은 책 한 쪽 구석의 아주 작은 고구마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아기”라고 부르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고구마들의 그림을 보고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모두 가족이에요”라며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배경처럼 지나쳤던 부분에서 유아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어요.

박 교사(5년차 유치원 교사)와의 대화에서...

●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로서의 유아

다음 그림은 책을 읽는 독자의 반응을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독자**

**온전하게
자율적으로
해석하는 독자**

텍스트에 지배된 독자

텍스트 자체의 객관적 의미와 구조, 작가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독자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와 독자의 사이

문학적 읽기 경험은 독자와 텍스트 간 상호작용입니다. 독자는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워 넣습니다.

완전히 자율적인 독자

텍스트의 의미는 독자가 스스로 구성하며, 독자의 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감정 등이 의미 해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텍스트가 주는 정보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자는 책을 볼 때 독자에 따라
그리고 책을 읽는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지식을 구성하고,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마다 책을 읽는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책을 읽는 과정 중에도
일어나며, 책을 다 읽은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반응이론

독자가 읽은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텍스트에 하나의 고정된 의미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리고 독자는 각자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한다고
본다.

노들먼(Nodelman)은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에서
책 읽기를 '받아들여야 할 대답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할 질문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유아는 텍스트 속에 고정되어 있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하고

상상하고

해석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독자**입니다.

능동적인 독자로서의 유아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유아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책을 만납니다.

이때 유아들은 맛고 틀림에
얼매이지 않고 책 속 세계를
마음껏 탐험하며 즐깁니다.

유아는 책의 텍스트와 그림을 보며
자신이 겪어온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책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유아는 이야기 속 세계에 몰입하며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상상과 추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합니다.

● 유아 독자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책 읽기

처음엔 ‘이 책은 유아에게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유아가 그 책을 즐겁게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유아는 어른보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글과 그림을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돼지들이 페이지를 넘어다니는 장면을 보고 유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기 돼지 세 마리』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이옥용 역 | 마루벌

이 장면에서 돼지들이 이야기 밖으로 탈출하거나 다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비선형적인 서사와 모호한 시각적 단서에 유아 독자들은 즐겁기도, 당황스럽기도 하다.
유아들은 이 당황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이야기를 더욱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 없는 그림책은 독자가 빈 공간 속으로 들어와 스스로 이야기를 채우도록 초대합니다. 그림의 의미에 호기심을 가지며, 천천히 음미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유아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글없는 그림책을 마음껏 즐깁니다.



『거울속으로』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이 장면에서는 책의 제본선을 거울의 경계로 삼아 현실 세계와 거울 속 세계를 나누면서도 이어놓은 듯한 독특한 구성이 돋보인다. 유아 독자들은 소녀의 모습과 거울 속 반영에 호기심을 갖고, 천천히 살피고, 해석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 유아의 고유한 읽기 방식 다시 보기

그림책을 읽는 유아의 고유한 읽기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아들이 그림책과 만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읽기 방식들을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이야기 따라가며 읽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방식입니다.

글이나 그림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학 요소(배경, 등장인물, 플롯, 주제 등)를 분석하며 읽습니다.

다른 것과 연결 지어 읽기

지금 읽는 그림책 속의 텍스트를 다른 책이나 이야기, 혹은 다른 물건(다른 예술가의 작품, 영화, 공연, 동영상, 친구의 글이나 그림 등)들과 연결 지어 읽는 것입니다.

삶을 끌어들여 읽기

책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 유아 자신의 삶과 관련 짓는 것입니다.

즉, 그림책을 읽으며 유아가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끌어들여 읽는 것입니다.

책 속에 빠져들여 읽기

책 속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여, 마치 자신이 그 책 장면 안에 정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읽는 방식입니다.

이야기 해체하며 놀이하듯 읽기

유아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책 속 이야기를 해체하거나 변형하고, 이를 몸짓, 소리, 연기 또는 상상의 놀이 등으로 새롭게 표현하며 역동적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엿들으며 읽기

책의 텍스트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책에 집중해서 읽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변에서 책의 이야기를 엿듣거나 흘려 듣는 방식으로 읽습니다.

해석 공방전 벌이며 읽기

책의 내용이나 숨겨진 의미, 장면에 대해 다른 독자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하며 읽는 방식입니다.

유아가 그림책과 만나 보여주는 교유의 읽기 방식들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읽기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 모든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은

유아가 더욱 능동적인 독자로 자라나는 데 든든한 힘이 됩니다.

유아의 모든 읽기 방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바라보는 교사의 노력은

유아의 적극적 읽기를 활짝 꽃피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그림책 읽는 유아의 목소리 들어보기

그림책을 읽는 유아의 모습은 단순히 글자를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감정, 상상력, 놀이가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실제 교실에서 유아들이 그림책을 어떻게 읽고 반응하는지, 유아의 읽기 반응 일부를 그림책 대화를 통해 살펴봅시다.

삶을 끌어들여 읽기

『이파라파 나무나무』 그림책을 읽으며...

(커다란 괴물이 “이빨아파 너무너무”하며, 우는 장면에서)

하준 아팠나 봐. 울고 있어.

주원 (인상을 찌푸리며) 선생님!
저도 이가 썩어서 치과간 적 있어요.

교사 주원아도 이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구나.

준서 나도 썩은 거 있어!

하준 괴물도 아팠겠다.



『이파라파 나무나무』 이지는 글·그림 | 사계절

이처럼 유아들은 그림책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과 관련 지으며 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빠져들어 읽기

『구름빵』 그림책을 읽으며...

(구름빵을 먹은 남매가 하늘을 날며 아빠를 찾는 장면에서)

- 준서** 아빠 저기 있다! 버스에! 저기 있잖아!
- 주원** (주인공 남매에게 소리치듯이) 버스 안을 보라고!
- 하준** (손을 위로 뻗어 흔들며) 아빠! 여기요! 해야지!
- 준서** 저기 손잡이 잡고 있는 아빠! 위에 보세요!
- 하준** 위에 보세요!



『구름빵』

백희나 글·그림 | 한솔수북

이 장면에서 유아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장면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유아가 책 속 등장인물에게 말을 걸고,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은 그림책으로의 깊은 몰입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해체하며 놀이하듯 읽기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림책을 읽으며...

(괴물들이 맥스를 왕으로 세우고 함께 춤을 추는 장면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로운이가 일어나서

팔을 크게 흔들며 괴물 춤을 추기 시작한다.

- 하준** 나는 엄청 큰 괴물할래!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뿔 모양을 만들고 발을 쿵쿵거린다.)

준서 나도나도!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리스 샌닥 글·그림, 강무홍 역 | 시공주니어

유아들은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상상 놀이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책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창조하며 역동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지요.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 읽기 대화를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전사를 해도 좋습니다!





유아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유능한 독자임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

Q

그림책 해석은 오로지 개인의 것일까요?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듣고, 질문하며,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간다면
교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의 그림책 장면에도, 유아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 배경,
생각이 다르니까 엄청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처음엔 좀 시끄럽고 정신없어 보일 순
있겠어요. 그래도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조율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더 커질 것
같다는 기대가 들어요!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그 생각을 칭찬하면,
유아들의 읽기 자신감도 올라가겠어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이 책의 백미 중 하나는 마지막에 숨겨진 장면!

큰 물고기가 모자를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결말이었죠.

유아들은 이 숨겨진 진실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 먹었을 거야!”

“아니야. 작은 물고기가 모자를 다시 되돌려 줬을 거야. 그냥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유아들 간의 시끌벅적한 해석의 공방전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유아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건,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이 맞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유아는 친구의 주장과 근거를 듣고 “어? 그런가?” 하고

생각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줬지만요.

그래서 저에겐

유아들이 쏟아내는 서로 다른 생각과 해석들을 어떻게 엮어주고, 조율하며,

무엇보다 ‘나와 다른 생각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어요.

유아와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그림책을 읽은 후
김 교사가 적은 저널 중에서...

●● 해석공동체의 의미

하나의 텍스트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Fish(1982)는 책을 읽고 해석을 공유하는 독자들의 집단을 **해석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해석공동체

해석공동체는 텍스트를 함께 읽고 해석하기 위해 특정한 관점이나 전략을 공유하는 독자 집단을 말한다. 개인의 감상이나 이해에만 머무르는 '읽기'가 지니는 한계를 넘어, 독자들이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유아들도 해석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유아들도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으며 유아들이 함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은 유아가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유아들에게 교실 해석공동체는 왜 필요할까요?

**문학의 주요 즐거움은
문학이 이끌어내는 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문학이 선사하는 즐거움입니다. 유아들이 이 즐거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교사들은 문학과 관련된 풍요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림책 대화는 유아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실 해석공동체에서 독자는

- 자신과 다른 해석을 만나고,
-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더 정교하게 다듬게 됩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해석을 더 명료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며 책을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독자가 더욱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교실 해석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아는 그림책 속 낯설고 이상한 장면들을 교실 해석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상상하고 추론하는 경험을 합니다.

다음은 그림책 『이상한 화요일』을 읽는 노 교사 학급 유아들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은유 뭐지? 개구리가 왜 하늘을 뜨지?

마을 (하하 웃으며) 개구리가 날개가 생겼나?

지원 마법을 부린 게 아닐까?

은유 이상한 거 같아. 그래서 이상한 화요일인거지.

마을 어떻게 집게가 하늘을 날 수 있어?

은유 그러게.

하은 새벽 4시 30분.

마을 집게가 날았어.

하은 이건 마술이 아닌 것 같아! 이건 개구리가 날아서 집게가 이렇게 된 거야!

(중 략)

하은 다음주 화요일 저녁 7시 58분.

마을 응? 이제 돼지가 날기 시작하는데?

은유 (흐흐흐 웃으며) 이것 봐. 돼지 꼬리도 이상해~

하은 이건 멧돼지랑 돼지야.

은유 어 진짜 멧돼지도 있어.

하은 오늘은 멧돼지가 나는 거 아닐까?

마을 선생님이 나는 거 아냐?

지원 우리 다같이 날아가는 거 아냐?

「이상한 화요일」을 읽으며, 2022. 06. 15.

대화록 출처 : 노다운(2023). 메타픽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해석공동체에서의 의미구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한 화요일』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 비룡소

이 장면에서는 평범한 화요일 밤, 갑자기 개구리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 화요일에는 돼지가 하늘을 나는 등,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며 독자에게 상상과 재미를 선사한다.

교실 해석공동체에서 유아들은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을 보며, 의문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이는 개구리에게 날개가 생겼다고 상상을 했고, 지원이는 마법에 걸렸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하은이는 집게가 나는 현상을 개구리가 날기 때문이라고 연결 지으며 자신만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교실 해석공동체 안에서 그림책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유아들의 재미있는 상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유아들은 서로의 생각에 하나하나 새로운 의견을 덧붙여가며, 개구리 다음에는 돼지가 날고, 이어서 멧돼지, 선생님, 나아가 “우리 다같이 날아가는 것” 까지 상상을 확장했습니다.

그림책 장면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유아들의 다양한 생각과 상상력이 덧붙여지며,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 ‘진정한 교실 해석공동체’는 어떻게 만드나요?

교실 해석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교실 해석공동체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사가 교실 해석공동체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석의 주도권은 유아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유아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글 읽어주기
- 이야기 순서 정해주기
- 유아들의 말 요약해주고 다시 들려주며 명료하게 표현하도록 돕기
- 문학적 안경 제공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에 문학적 이해 넓혀주기

교실에는 다양한 가족, 문화, 종교, 사회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덕분에 교실 해석공동체의 그림책 대화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는 다양한 유아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이 해석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아들의 서로 다른 해석,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유아가 ‘선생님이 내 생각과 경험을 존중해 주고 있어’라고 느낀다면, 유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문학적 의미 구성에 활용할 것입니다.

교실 해석공동체가 지닌 의미 되새기기

교실 해석공동체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율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한 가지 의미로만 수렴되어 다양성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지요.

따라서

교실에서는

함께 만든
의미

를 존중하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실 해석공동체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그림책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함께 읽어봅시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글만 읽었을 때와 그림까지 함께 보았을 때,
여러분의 해석이 달라졌나요?
작은 물고기는 정말 들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풀 속에 가려진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

떠오르는 이야기와 해석들을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나누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그림책 해석공동체입니다.

“

제2장

그림책 안과 밖 넘나들기



2장에서는 그림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림책 안에서 글과 그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한 그림책을 읽는 기호로써 시각적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책 그 자체를 들여다 보며 책의 물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책을 책으로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림책을 둘러싼 주변적인 정보인 파라텍스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1 글과 그림의 관계

02 그림책의 시각적 텍스트

03 그림책의 물성

04 그림책의 파라텍스트



이를 위하여 몇몇 그림책의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림책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개념들을 살펴봅니다. 이 장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익숙한 시선을 내려놓고, 그림책 읽기에 깊이를 더하는 풍성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그림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Q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에서 글과 그림은 어땠나요?

저는 『파도야 놀자』에서 소녀가 파도와
한바탕 놀고 나서 점차 파도의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두근두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어릴 때 바다에서 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지거든요.



저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 마지막에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라는 글이 두근두근
인상깊었어요. 그림이 없이 흰 바탕에 글씨만
있다 보니, 맥스의 환상 속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잘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어
무척 안심이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가 생각나요.
글은 유아의 입장에서 아빠를 찬양하고 있지만,
정작 그림에서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글과 그림 사이의 묘한
김장감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더라고요.

오늘 한 유아가 『우리 아빠』를 읽어달라고 했다.

“그래 좋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찬양이 극을 향해 달려가는 글과는 달리

어쩌면 평범하거나, 어쩌면 초라해보이는 아빠의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

“선생님, 우리 아빠도 엄청 힘 세요.

우리 아빠는 거인이예요.”

옆에서 책을 읽어 달라던 유아가

자신의 아빠를 떠올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어릴 때도 글 속의 ‘최고의 아빠’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림 속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만들어내는 묘한 간격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아빠의 사랑을

담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시큰거렸다.



『우리 아빠』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공경희 역 | 웅진주니어



유아와 『우리 아빠』를 읽은 후 김 교사가 쓴 저널 중에서...

●● 그림책: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은 말 그대로 ‘그림이 있는 책’이지요.

그림만 있다면 그림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그림책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Janet Lunn(2003)은

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은 진정한 파트너여야 하며, 최상의 그림책은



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래서 잘 만든 그림책은 글이든 그림이든
단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Lunn, J. (2003). The picture book: A commentary. In A. Hudson & S. A. Cooper(Eds.), Windows and words: A look at Canadian children's literature in English (pp.185-190).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그림책이라는 공간은 글과 그림이라는 적어도 두 개의 기호가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조합되는 공간입니다.
유아는 글과 그림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둘을 통합시켜 해석해가지요.



그래서 ‘글이 먼저다, 그림이 먼저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는 글이 먼저인 것이, 언젠는 그림이 먼저인 것이, 언젠는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이
더 풍부한 해석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나 그림이 각자 우위에 서는 관계를 넘어

서로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함께 융합되며 시너지를 내는,
글과 그림을 따로 또 같이 읽음으로써 의미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그림책’의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책의 진정한 감동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글과 그림의 리듬: 일치, 보충, 대위

그림책에는 고유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일치**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가 하면,

다음 장면에서 글과 그림이 일치하는지 살펴볼까요?



『코볼소 한 마리 싸게 사세요!』 쉐 실버스타인 글·그림, 지혜연 역 | 시공주니어

이 장면에서, 그림은 글의 묘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글과 그림이 일치되어 안정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어떤 그림책은 그림이 글을 보충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림만 보고 가장 왼쪽에 눈을 감고 있는 들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글·그림, 최순희 역 | 시공주니어

글에는 ‘왜 일을 하지 않는지’를 다른 들쥐들이 물으면, 프레드릭이 ‘햇살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소개된다. 그림은 옥수수를 훑기는 네 마리의 쥐와 햇별을 찌는 한 마리의 쥐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글을 보지 않고는, 햇별을 찌는 들쥐가 ‘햇살을 모으는 일’이라는 고유한 맥락이 담긴 행위를 하는지, 일하기 싫어 게으름을 피우는지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글과 그림은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를 갖는다.

어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대위**하면서 새로운 역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위관계

작곡에서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선율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대위법에서 나온 표현으로, 그림책에서는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관계를 뜻한다. 글과 그림이 시사하는 시점이 상반되면서 긴장을 초래한다.

자, 다음의 장면을 살펴볼까요?



글에서 작은 물고기는 자신을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이어서 볼까요?



글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큰 물고기의 눈을 보니,

정말 작은 물고기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이 그림책의 글은 작은 물고기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다. 이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모자를 뺏어 달아난 뒤, 큰 물고기가 잠에서 깨어나지도, 모자가 사라진지도, 자신이 어딘지도 모를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달아난 방향으로 큰 물고기가 향하고 있고, 결국 작은 물고기가 숨은 수풀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글과 그림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해가기도 한다.

●● 그림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이 리듬을 적절히 즐긴다면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들이 주는 제한된 정보를 실마리 삼아서,
마치 수수께끼를 풀 듯이 이야기를 파악하고,

그렇게 이해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그림을 다시 해석하고,

이런 되풀이되는 과정을 오롯이 겪을 때
창조적인 그림책 읽기가 가능해지니까요.

이런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단순히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글과 그림의 관계를 스스로 탐구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해석자가 됩니다.



특히 유아들은 글과 그림의 불일치나 빈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림 속 세부 요소를 통해

이야기를 확장시켜 가며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책이 언어발달과 문해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익숙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유아들이 글과 그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예술이자 문학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는

글의 의미를 그림이 확장하고,

그림의 느낌을 글이 해석해 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요.

자, 이제 그림책에 담긴 문학적·예술적 세계를
함께 탐구해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선생님들과 『로지의 산책』을
그림만 먼저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 글만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글과 그림을 함께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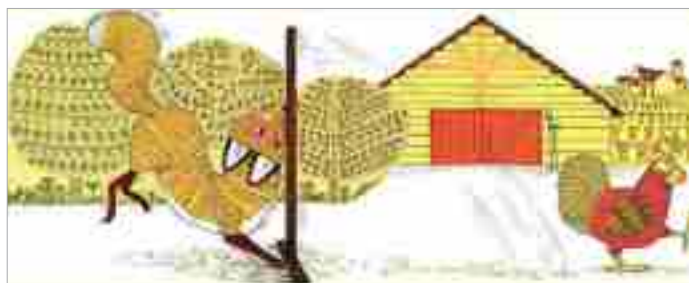
되읽을 때마다 그림책 해석이 어떻게 달라져갔나요?

“

글과 그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읽을 때,
선생님에게 새로운 배움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

그 배움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로지의 산책』 팻 허친스 글·그림, 김세실 역 | 봄별

Q

그림책을 읽다가 ‘그림이 말을 거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별과 나』를 보면 칠촉 같이 어두운 밤에
뜨 별들이 여러 동글동글 귀여운 도형들로
그려져 있어서 편안하고 아늑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별이 나를 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싹오싹 당근』을 보면
토끼와 당근의 색과 구도가 이야기의 긴장을
만들더라고요. 무서운 당근귀신인 줄 알았다가
사실 비슷한 모양의 목욕 용품이었고...
그런 그림들이 저에게 말을 걸면서
긴장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달이야?』에서,
굵고 단순한 선의 변화만으로 리듬이 느껴졌어요.
글 없이도 장면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오싹오싹 당근』 애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 홍연미 역 | 주니어RHK

우준: 여기는 좀 무서워요.

교사: 이 장면은 좀 무섭게 느껴졌구나.

어떤 것 때문에 무섭게 느껴졌니?

우준: 너무 깜깜해요.

도현: 저 삼푸통이 당근귀신 색깔이랑 너무 비슷해요.

유아들에게 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그림자와 주황색 당근들이 만들어내는 강한 대비였다.

묘하게 당근과 비슷한 모양과 색의 목욕 용품들이 화면 한쪽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 배치가 앞 장면의 오싹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장치였다는 걸

유아들이 스스로 발견해낼 때마다 나도 덩달아 재밌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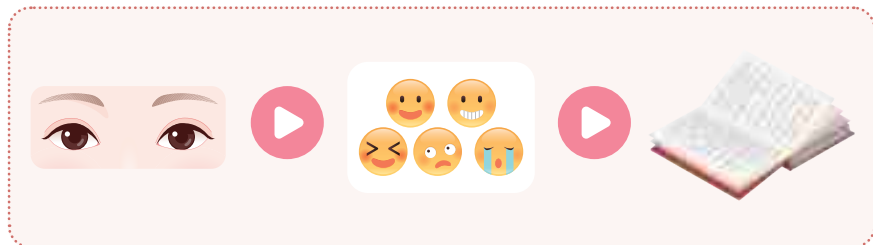
색과 구도의 작은 차이가 어떤 분위기와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그림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순간은 어땠는지를 유아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다.

유아와 『오싹오싹 당근』을 읽은 후 박 교사가 쓴 저널 중에서...

●● 그림 읽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글과 그림이 동시에 제공되면 인간은 그림부터 인식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위 그림부터 읽고 이 글을 읽고 계시겠지요?

그림책을 문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텍스트(visual text)를 읽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먼저 인식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미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아무리 자동적이라 해도 그것의 실질적인 읽기는 소극적인 일이 절대 아니다.

그림을 보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것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Gombrich(1972)

기호학적 관점에서 그림 읽기

인간은 보라고 배운 것을 봅니다(Arnheim, 1986).

시각적 텍스트를 읽는 것이 학습되는 것이라면,

교사들이 그림책에서 어떤 시각적 텍스트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는지를 관찰하고 안내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글 없는 그림책이라면

그림책의 시각적 텍스트를 탐색하는 과정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읽을 것’이 눈에 빨리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사가 시각적 텍스트의 몇몇 기호학적 부호를 짚어준다면,

유아들은 훨씬 더 편하게 그림책 해석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호(code)

특정한 형태의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관습적 규칙을 의미하는 기호학 용어이다.

그림책 작가들은 독자들이 자신의 그림책에서 의미를 발견해주기를 바라며, 색, 선, 모양, 장면 배치(layout), 그림틀(frame), 글자 배치(typography) 등과 같은 시각적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출처: <https://kr.freepik.com/>

●● 그림책에서 그림 읽기: 색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있지만 그중 단연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것은 '색'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색은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과 잘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높고, 밝고, 붉은 계열의 색으로 그려진 장면에서는
즐겁거나 희망적인 느낌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의 장면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을 느끼는 것 같나요?



『수박 수영장』 안녕달 글·그림 | 창비

이 책은 빨간 수박과 주황빛 노을 속에서 독자에게 싱그러운 여름의 추억과 정취를
떠올리게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

강도가 낮고, 어둡고, 보라 계열의 색으로 그려진 장면에서는 슬프거나 우울함, 음산함의 느낌을 떠올리곤 하죠.

다음의 장면에서 주인공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100 인생 그림책』

하이케 팔러 글, 발레리오 비달리 그림, 김서정 역 | 사계절

이 책은 여러 가지 감정을 다양한 상황에 빚대어 표현한 그림책으로, 지루하고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장면을 보라색으로 가득 채웠다.

이렇듯, 다양한 색의 결합이나 대조를 통해 전반적인 서사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며,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색은 책읽기에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며,
다른 아동문학 장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책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Perrot(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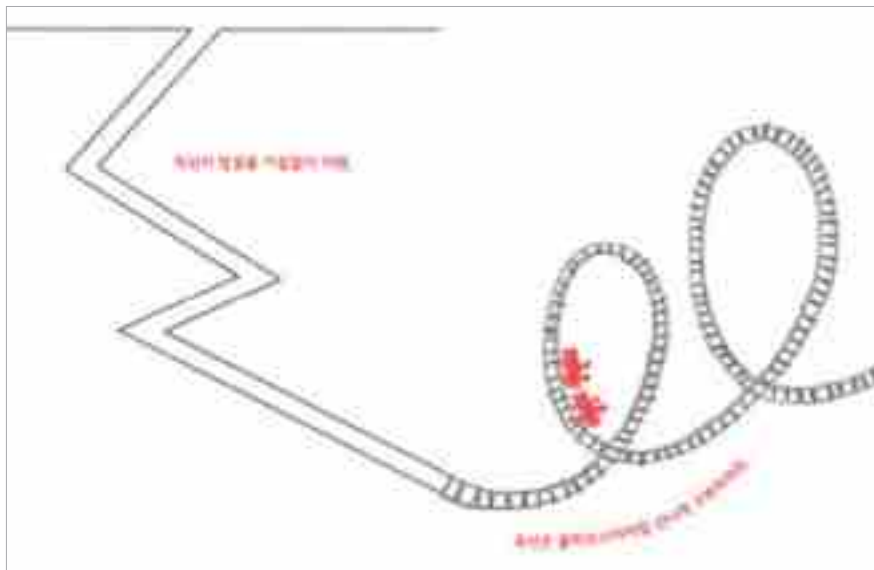
Perrot, J. (2003). On butterflies: Stories and fables for children from the 17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Diogenes, 50(2), 41-54.

●● 그림책에서 그림 읽기: 선

선은 단순히 형태의 외형을 경계 짓는 것을 넘어,
감정, 분위기, 움직임,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시각적 언어 중 하나입니다.

직선인지 곡선인지, 실선인지 점선인지 등 선의 모양은
우리가 그림을 색다른 느낌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직선과 곡선은 각각 어떤 느낌을 전달하나요?



『직선과 곡선』 데보라 보그릭 글, 피아 발렌티니스 그림, 송다인 역 | 브와포레

이 책은 직선과 곡선의 대화를 통해, 직선과 곡선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상에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일깨워준다.

매끄러운 선인지 거친 선인지 등 선의 질감에 따라
고요함이나 불안감, 정체감과 역동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동물들의 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뛰어라 메뚜기』 다시마 세이조 글·그림, 정근 역 | 보림

선은 형태를 이루고 재질감을 표현함으로써 이미지를 구성하고,
서사 차원의 의미 효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선은 단지 사물의 외곽이나
경계선 이상이며, 무한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Lauer & Pentak (2002)

●● 그림책에서 그림 읽기: 모양

특정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모양은 부드러움, 조화, 연속성, 안정, 친밀함을,

세모 모양은 긴장, 역동성, 불안정, 위협을,

네모 모양은 안정성, 규칙성, 견고함, 질서를 느낍니다.

그림책의 표지에서 데이비드와 어항의 구도는 어떤 모양을 떠오르게 하나요?



『안 돼, 데이비드!』

데이비드 새넌 글·그림, 김경희 역 | 주니어김영사

제멋대로 행동하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는 엄마의 불안한 시선을,
세모 모양으로부터 우리도 함께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모양의 형태나 크기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주요 인물의 형태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졌다면
그 자체로 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요.

검은 새가 작을 때와 커졌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검은 새』 이수지 글·그림 | 길벗어린이

검은 새의 크기를 소녀의 불안함의 크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그림책에서 그림 읽기: 장면배치

우리는 그림의 배치에 담긴
여러 속성을 통해
상징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직이

두드러지는

장면배치에서

흥분과

에너지를

느끼고,

장면이
빹빹할수록
강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바다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글·그림, 김숙 역 | 북뱅크

수평이 두드러지는 장면 배치에서는
안정감과 조용함을 느끼곤 합니다.

장면이

성성할수록

약한 느낌을 줍니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존 버닝햄 글·그림 | 비룡소

『바다 100층짜리 집』에서 백백하게 채워져서 위부터 아래로 시선이 흐르는 느낌과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에서 성성하게 그려져 좌에서 우로 시선이 흐르는 느낌을
비교해봅시다.

캔버스 내에서 장면이 어떻게 배치되는가는 그림책을 보는 시선을 결정합니다.

그림책을 보는 시선의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는가, 그 다음에 무엇과 함께 보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글과 같이 그림도
페이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물이나 모양을 왼쪽에 두면 그것을 더 중시하여 읽게 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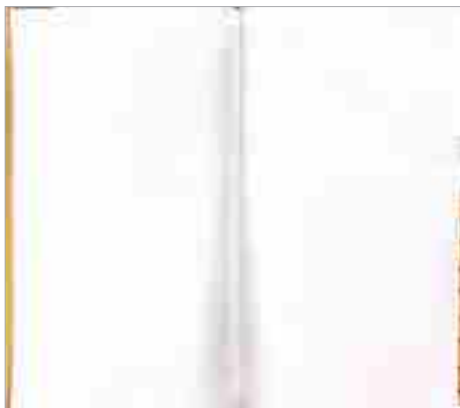
출처: <https://brunch.co.kr/@stellalim/62>

또한, 등장인물이 장면의 위쪽에 배치되면 지위나 권력이 높거나 중요한 인물로,
아래쪽에 배치되면 활기가 없거나 사회적 위치가 낮은 인물로 여기게 되죠.

때로는 그림책의 빈 장면이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각적 텍스트가
비어있을 때
독자들은 배신감과 함께
묘한 재미를 느끼게 되지요.

즐겁게 거울과 놀던 소녀는
빈 페이지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울속으로』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그림책에서 그림 읽기: 그림틀

그림틀은 그림이 있는 어떤 세상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입니다(Moebius, 1986).

보통 그림책의 그림은 여백 없이 페이지 꼬트머리까지 꽉 차 있는데,
이는 제한된 크기의 페이지 너머에도
삶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그렇게 책 밖으로 흘러 넘친 이야기가 독자의 삶에 녹아들게 되면,

독자는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 넘쳐 삶에 녹아든 이야기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지요.

그림틀은 인쇄된 상태의 물리적 페이지의 실제와 그림이 만들어내는
환상과의 경계이거나,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로 구분 짓는 시간과 공간,
또는 실제 세계에서 표상 세례로의 전이이다.

-Sipe (2011)

Moebius, W. (1986). Introduction to picturebook codes. A Journal of Verbal/Visual Enquiry: Word & Image, 2(2), 141-158.

Sipe, L. R. (2011). 유아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 유아의 문학적 이해 및 문학교육. (서정숙 역). 창지사.

그림들은 이야기의 시간성과 정서적 흐름을 나타내는 시각적 부호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사이에 시간성, 인과성을 느끼게 되고,

그림들의 경계 속에서 이미지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덕분에 그림책을 시퀀스 예술(sequential arts)이라 부르곤 하지요.

다음은 그림책의 한 장면입니다. 나무는 전체에 꼭 이어져 그려져 있지요.

그런데 인물들은 하얀 선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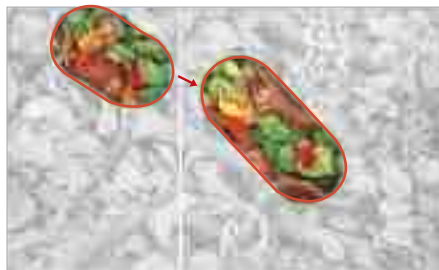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없는 나무』 클로드 폰터 글·그림, 윤정임 역 | 비룡소

이 장면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경계만 가지고도 왼쪽 그림틀로부터 시간이 흘러 오른쪽 그림틀로 시간이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끝없이 이어진다는 점도 아울러 표현하고 있다.



그림들은 경계 없이 통째로 펼쳐질 수 있는 이미지를 한 장면 안에서 분할하며, 서사를 순서대로 읽도록 하는 효율적인 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림들은 소년의 모습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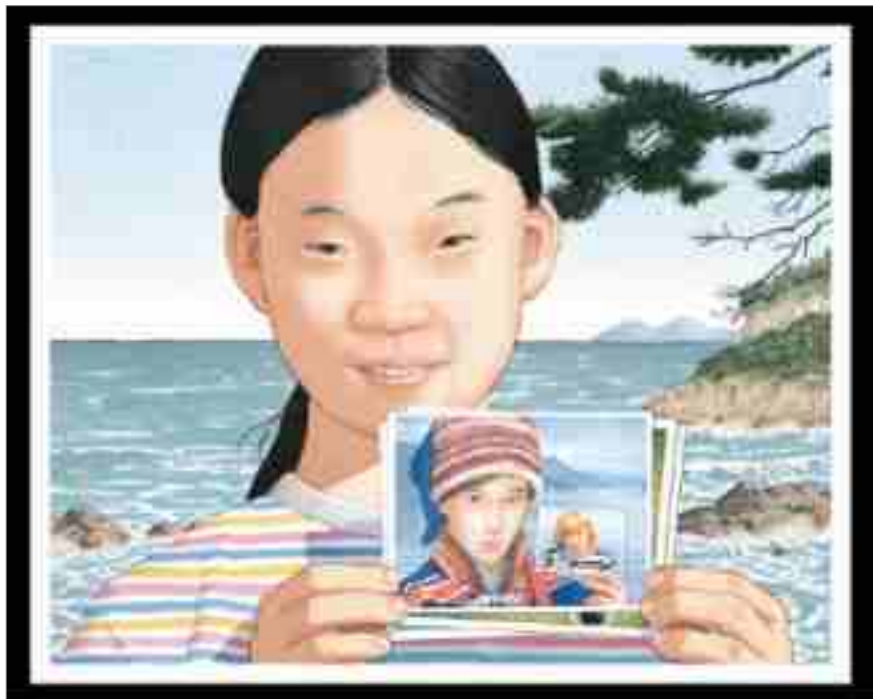


각 장면을 하나의 페이지마다 그렸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짧은 호흡 속에서 시시각각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잘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같은 그림책 안에서 이야기의 층위가 다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이 장면은 앞페이지에서 돋보기로 사진을 관찰하던 소년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일까요?



『시간 상자』 데이비드 위즈너 글·그림 | 시공주니어

이 장면은 앞 페이지에서 돋보기로 사진을 관찰하던 소년이 바라보는 사진을 나타내고, 현재와 다른, 자신이 겪지 않은 과거의 시간들을 의미하며 층위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들은 이렇게 층위가 다른 장면이 삽입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한다.

그림책에서 그림 읽기: 글자 배치

심지어 그림책에는 시각적 텍스트라고 잘 생각되지 않는 글 텍스트마저도 글씨 크기나 글씨체, 모양, 채색, 배치 등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자 배치는 흔히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라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읽기 쉽게 배열하는 기술로, 글꼴, 크기, 간격, 정렬 등을 조절하여 디자인의 가독성과 분위기를 높이는 예술이자 기술이다.

다음 장면에서 글씨는 어떤 방식으로 쓰여 있나요?



『콩콩콩』 이희은 글·그림 | 한솔수북

'하늘에서 사과가 콩'이라는 글자가 보통의 책의 줄글처럼 나란히 쓰여있었다면 느낌이 어땠을까?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그림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그림책의 전체적인 서사와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타이포그래피는 글마저도 그림과 밀착하여 결합되어 있는
그림책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바람이 불어 비가 누웠네요. 글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도도도도도』 방코 글·그림 | 문학동네

‘도도도도도’라는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다.
비가 누웠다는 것을 글자도 함께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비의 움직임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글과 그림이 한데 섞여 글인지 그림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그림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 그림 읽기의 의미 다시 생각해보기



이러한 시각적 텍스트들의 여러 요소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지를 생각하며 읽는 과정 속에서

독자들이 저마다의 해석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독자들이 저자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만든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는 텍스트의 힘은,
결국 그림 읽기라는 마중물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출처: 진서문화교육재단(2014)

그림책을 보다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각적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이제 더 와닿으시나요?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선생님들과 『책 청소부 소소』를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① 시선이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어디인가요?
- ② 색/선/모양/배치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되나요?
- ③ 그 장면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

자신이 집중하여 읽고 감상한 그림에 대해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



『책 청소부 소소』 노인경 글·그림 | 문학동네

그림책의 물성

그림책을 그림책답게 만드는 것

Q 유아들이 '책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림책은 꼭 책으로만 읽어야 할까요?

에르베 킬레의 『Press Here』를 읽었는데,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림에서 유아들이 책을 뒤흔들며 놀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림책을 펼쳐
빙 둘러 세워놓고는 마치 집처럼 그 안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책 표지가 단단해서 잘 세워지니
책을 놀잇감으로 써서 놀더라구요.

이수지 작가의 『그림자 놀이』에서
종이를 들어 앞뒤 그림의 겹치는 모습까지
감상하자면, 이건 정말 책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자놀이』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그림자놀이』는 앞면과 뒷면이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교실을 어둡게 하고, 종이를 들어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서 뒷면에 비추면
앞뒤 그림이 한데 뒤섞이면서 묘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책이 종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감상 방법이다.
이걸 PPT동화로 봤다면 느낌이 어떻게 달랐을까?
책이 책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재미인 것 같다.

유아와 『그림자놀이』를 읽은 후
이 교사가 쓴 저널 중에서...



●● 물성이란

‘물성(materiality)’은 물질이 가진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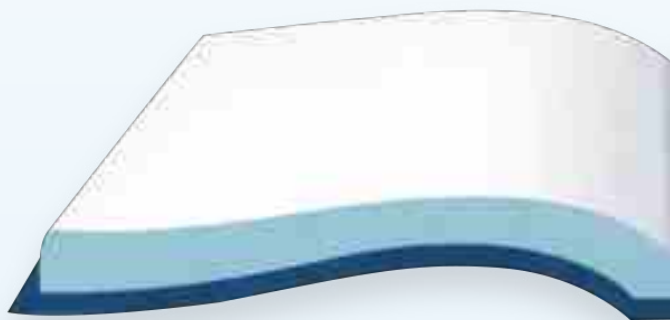
여기에는 촉감, 질감, 두께, 밀도, 빛을 머금은 정도 등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의 물리적 속성만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이가 **그 물질이나 공간을 경험할 때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아우르는 것으로,

건축, 디자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책의 물성을 한 번 살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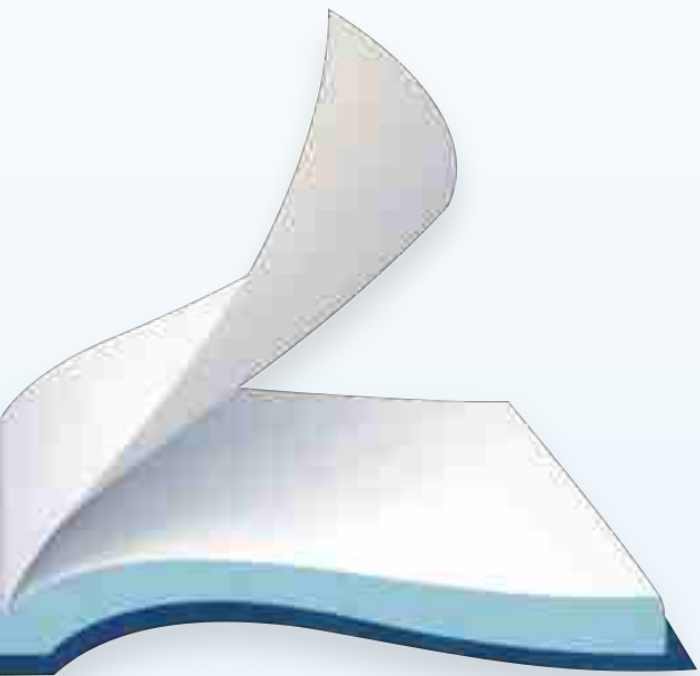
책이라는 ‘물건’은 참으로 오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지(2022)는 책을 두고,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고, 복제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보편적인 형식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지 (2022). 이수지의 그림책. 비룡소.

●● 그림책의 물성이 갖는 놀이성

유아들에게 그림책은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문학작품이자, 예술작품이자, 교육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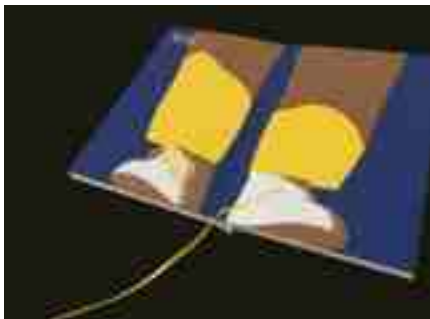
책의 귀퉁이, 두툼하고 딱딱한 표지, 책 가운데 제본선, 가름끈, 약간의 두께가 있고 코팅이 되어 있어 책을 넘기면서 들리는 특유의 소리, 특유의 냄새…….

무릎에 두었을 때 느껴지는 그 약간의 무게감이 안정감을 주고,
읽고 싶은 부분을 바로 펼치거나
과감하게 이야기를 역순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은
바로 그림책이 ‘책’이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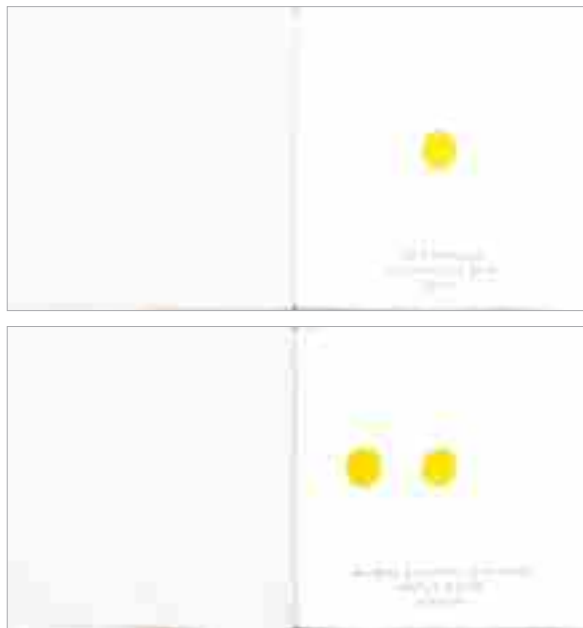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림책이라는 물질을 통한 감각적 경험과
그로부터 만나는 그림책만의 놀이성입니다.

유아들은 그림책과 물리적으로 만나면서 즐겁게 놀이합니다.

『리본』 아드리앵 파를랑주 글·그림, 박선주 역 | 보림



책장을 넘기거나, 가볍게 두드리는 등 조작적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그림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가 놀이가 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책놀이 Un Livre Press Here』 에르베 킬레 글·그림, 김호나 역 | 루크박스

가름끈이라는 물성을 활용하여
책을 직접 가지고 놀게 만드는 그림책도 있지요.



책을 책으로 읽는다는 것의 의미

요즘 많은 그림책들이 디지털화되어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원주민인 유아들이 디지털 콘텐츠로써 이야기를 접하는 건
이제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구태여 ‘책’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lotti, L. (2022). 8초 인류 :산만함의 시대, 우리의 뇌가 8초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이소영 역). 미래의창.

이런 점은 한 번 고민해봅시다.

스크린에 투사되는 영상 콘텐츠는
언제까지나 ‘보는’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지만,
책은 ‘읽는’ 사람을 독자로 만듭니다(Iotti, 2022).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갖는 힘이자,
‘책’을 읽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는 무엇이지요.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넘기고 있나요?

사진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유아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선생님들과 『나랑 놀자!』를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의 질문을 생각해봅시다.

책을 책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코 디지털 콘텐츠화될 수 없는
책만의 고유한 ‘무엇’이 있을까요?

“

생각한 것을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



『나랑 놀자』 정진호 글·그림 | 현암주니어

Q

유아들과 책 제목, 출판사, 면지까지 꼼꼼히 읽으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지만 잘 읽어줘도 유아들이 '이 책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글과 그림 외의 정보가 유아들의 이해와 몰입에 의외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유아들과 함께 면지나 출판 정보도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글과 그림만큼이나 색감, 글씨체, 책의 구성 등이 이야기 해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면지가 한 가지 색깔로만 쪽 되어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그림책들은 면지에 생각보다 단서나 힌트도 많이 숨겨두었더라고요. 그걸 알아챈 뒤로는 면지도 한번 더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윤: 『진정한 일곱 살』의 표지를 보며

그거 누가 그린 거예요?

교사: 이걸 허은미 선생님이 글을 쓰고,

오정택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진정한 일곱 살』

이라는 책이야. 함께 읽어볼까?

소윤: 선생님들이 만든 책이에요? 나는 어린이가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교사: 그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소윤: 어, 그림도 안 예쁘고, 글씨가 이상해요.

교사: 어린이가 쓴 글씨 같아서 어른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었구나.

건우: 근데 어떻게 어른들이 진정한 일곱 살을 알아요?

교사: 글씨, 진짜 일곱 살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예준: 아니에요. 일곱 살 때를 기억하면서 그림책 만들었을 것 같아요.

유아들은 이미 표지에서부터 그림책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공방전을 오간 끝에야 겨우 한 장을 넘길 수 있었다.

때로는 그림책을 펼치기 전부터 표지를 열심히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책을 모두 읽고 난 뒤에 다시 표지를 보면서 해석을 확장해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그림책은 표지부터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유아와 『진정한 일곱 살』을 읽은 후 허 교사가 쓴 저널 중에서...



『진정한 일곱 살』
허은미 글, 오정택 그림
| 만만한책방

● 파라텍스트의 구분

그림책은 앞표지, 뒤표지, 책등, 앞면지, 뒷면지, 표제지, 헌사 페이지 등… 글과 그림 외에도 수많은 서지 정보들이 집약적으로 구성된 문학작품입니다.

그림책은 이런 주변적인 정보까지도 모두 의미를 전달하고 기호로서 기능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이런 주변적인 정보를 통칭하여
파라텍스트(paratext)라고 통칭하여 부릅니다.

좀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파라텍스트는 페리텍스트(peritext)와 에피텍스트(epitext)로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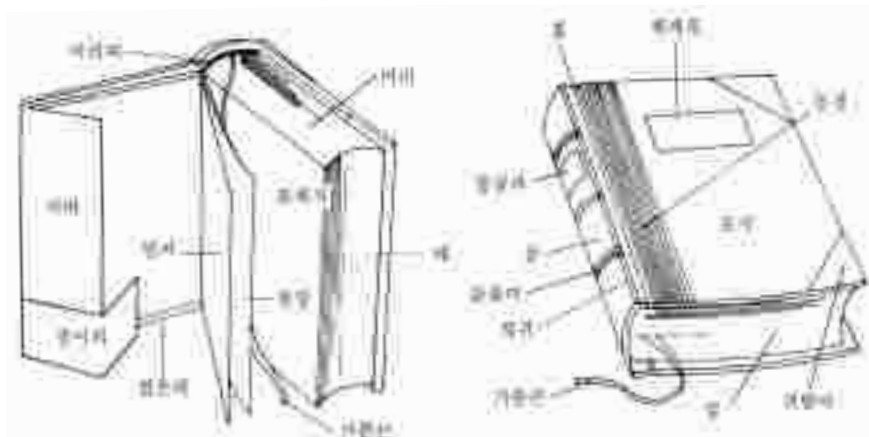
구분	유형	내용
페리텍스트	표지	앞표지, 띠지, 뒤표지, 앞날개, 뒷날개, 책등
	제목	표지, 속표지에 나오는 제목
	작가명	표지, 속표지에 나오는 작가명
	속표지	헌정사, 표제지, 출판정보
	면지	앞면지, 뒷면지
	판형	크기, 모양
	제본	형태
	재질	종이의 소재와 질감
에피텍스트	서평	인터넷 서점의 독자 서평
	인터뷰	그림책 작가의 인터뷰 또는 작품 설명
	광고	그림책에 대한 출판사의 소개, 홍보물
	관련저서	작가가 출판한 그림책 관련저서

출처: 권윤지, 이조은, 이연선(2016).

권윤지, 이조은, 이연선(2016). 그림책 『파도야 놀자』의 파라텍스트 의미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1-28.

파라텍스트는 주변적인 정보이지만,
그 정보는 결코 주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페리텍스트부터 살펴볼까요?



출처: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도서관(2025)

페리텍스트는 그림책이 가지는 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로,
본질적으로 그림책이 갖는 서사의 전반적인 의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책의 여행에서는 앞표지와 겉장으로부터 뒤표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Nikolajeva & Scott (2001)

● 페리텍스트의 의미 찾기: 표지

페리텍스트들이 갖는 의미를 더 자세히 찾아봅시다.

우선 표지는,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을 들어 페이지를 넘겨보고 싶게끔 매력적이어야 그림책이 ‘읽힐 수’ 있으니까요.

그림책의 앞표지는 보통 핵심적인 장면과 함께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이 나오게 되죠.



『대추 한 알』 장석주 글, 유리 그림 | 이야기꽃

그러나 앞표지만 있는 그림책은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함께 볼까요?

앞서 보여드린 그림책의 책등과 뒤표지까지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까요?



넓게 펼쳐지는 논과 나무, 자전거, 두 사람의 모습 등이 훨씬 풍성하게 담기면서
오랜 추억과 정취를 더 정겹게 느끼도록 합니다.
모든 그림책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책의 표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을
그리 많이 드러내지 않고도 스토리 이해를 위한 결정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Sipe & Pantaleo (2010)

● 페리텍스트의 의미 찾기: 면지

면지를 보면서 독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면지도 충분히,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그림책의 면지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책은 그림책 해석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심어둔 경우도 있어요.

면지에서 어떤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유일하게 한 개만 그려진 모양을 찾으셨나요?



「도둑을 잡아라」 박정섭 글·그림 | 시공주니어

이 책 그 어느 곳에도 직접적으로 범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면지에 담겨있는 그림 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 있어 직관적으로 범인을 유추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그림책은 그림책의 분위기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을 함축적으로 그려 두기도 했어요.

우리는 먼지를 통해 그림책을 다 보기도 전에 대략적인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지요.

무슨 글이 쓰여 있나요? 이 글은 누가 쓴 것일까요?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글·그림, 박상희 역 | 비룡소

등장인물 존은 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 지각하게 되고,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사가 존에게 강압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여, 존이 위축되어 가는 과정이 그림책 전반에 펼쳐진다. 이 먼지는 그런 존의 반성문을 담아냄으로써 존의 마음 상태와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는 데 좋은 정보를 주고 있다.



보통의 그림책은 앞면지와 뒷면지가 같지만, 어떤 그림책들은 그 둘이 다르지요.
이는 책 안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들을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면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뒷면지입니다.
다른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무지개 물고기의 비늘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책을 읽고 나면,
 무지개 물고기의
 반짝이던 비늘이 왜 없어졌는지,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보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글·그림, 공경희 역 | 시공주니어

● 페리텍스트의 의미 찾기: 판형

때로는 그림책의 판형이 이야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돕기도 합니다.
판형은 그림책의 규격을 말하는데, 워낙 크기가 다양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가로 직사각형의 210x297mm의 국배판이,
북미를 기준으로 해외에서는 8.5x11inches의 그림책이 표준적인 크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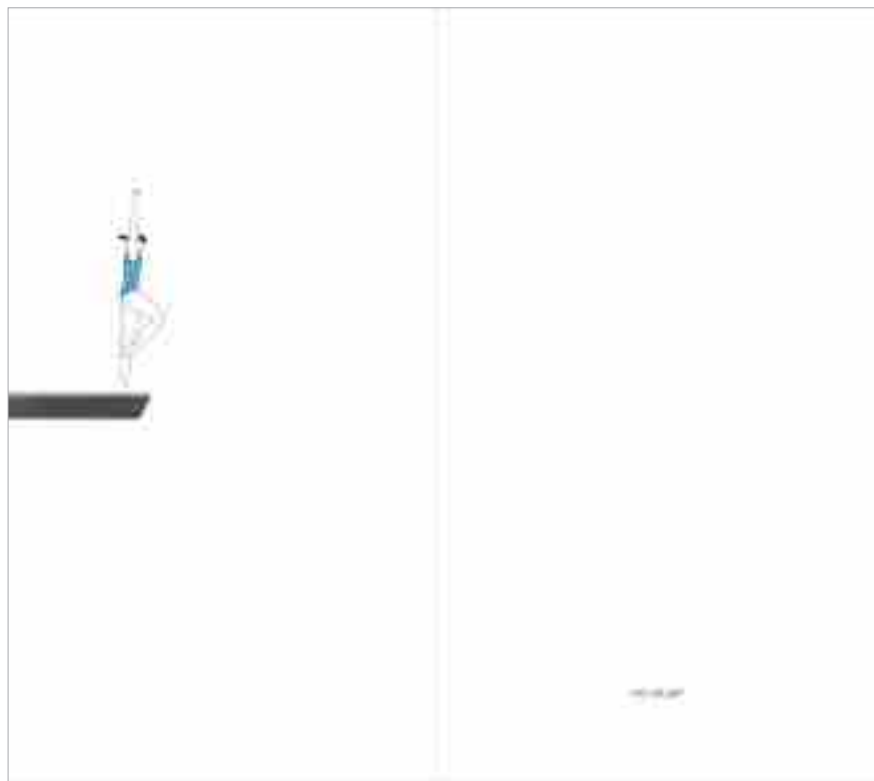
그림책의 판형은 단순한 크기를 넘어
이야기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내용과 상호작용하며,
독자의 감정 이입과 상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파라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로 긴 판형의 책은 다양한 시각정보들의 얹힌 관계를
한눈에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더 주도록 하지요.



『크리스마스123』 수쿠왕자 글·그림 | 초방책방

세로로 긴 판형의 책은 등장인물에게 보다 깊숙이 집중하도록 합니다.



『풍덩』 권송이 글·그림 | 웅진주니어

에피텍스트는 그림책의 서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림책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 주변적인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견,
그림책의 주요 독자들인 유아들이 접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림책보다는 인터넷, 광고 등 광범위한 매체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
작가가 작품 속에 남긴 빈틈을 확인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공인 받기도 하고,
그림책을 홍보하는 전단지 자체가 책의 세계를 탐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림책은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종합예술이라 불리는가
됩니다(이수지, 2022).

유아들이 그림책을 열어
우연히 그림책 전단지를 발견한 뒤,
흥미를 가지고 읽고 있다.



출처: 이수지(2022). 이수지의 그림책. 비룡소

● 에피텍스트의 의미 찾기: 서평

에피텍스트는

그림책 너머에도 텍스트가 존재하며 의미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서평은 우리가 그림책을 읽기도 전에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작품의 사회적 가치와 독서 방향을 구성하는 중요한 해석 장치이지요.



● 에피텍스트의 의미 찾기: 수상증표

에피텍스트 중 수상증표 같은 정보는
그림책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코드에 접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칼데콧 메달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



뉴베리 메달



놀로냐라가치 메달



안데르센 메달

상을 받았다는 증표는
작품의 가치와 신뢰성을 보증하는 에피텍스트적 기호로,
독자의 해석을 미리 규정하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서 작품의 선택과 소비를 유도하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상 받은 그림책이래.”라는 말을 듣는다면
한번 더 눈여겨 보지 않으셨나요?

● 파라텍스트 읽기의 의미

이처럼 파라텍스트는 그림책 앞과 뒤에서 위치하면서 독자의 해석과 읽기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변 텍스트입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미리 예고하고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을 설정하기 때문이지요.

파라텍스트는 작품이 속한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담론을 반영하며,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파라텍스트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를 잇는 경계이자,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기호체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책은 그 어느 곳이라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 닿는 모든 곳이 그림책 해석의 맥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림책을 들고,
이제까지 보고도 보지 못했던 것들에
시선을 돌려볼까요?



교사학습공동체와 함께 배움 나누기

선생님들과 『이사가』를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① 『이사가』 그림책을 처음 접했을 때 책싸개도 함께 있었나요?
책싸개는 그림책 읽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 ② 가로로 긴 판형은 작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 ③ 이 책은 볼로냐 라가치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표지에서 수상증표를 발견하기 전과 후에 그림책 해석의 차이는 없었나요?

“

생각을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



『이사자』 이지연 글·그림 | 엔씨소프트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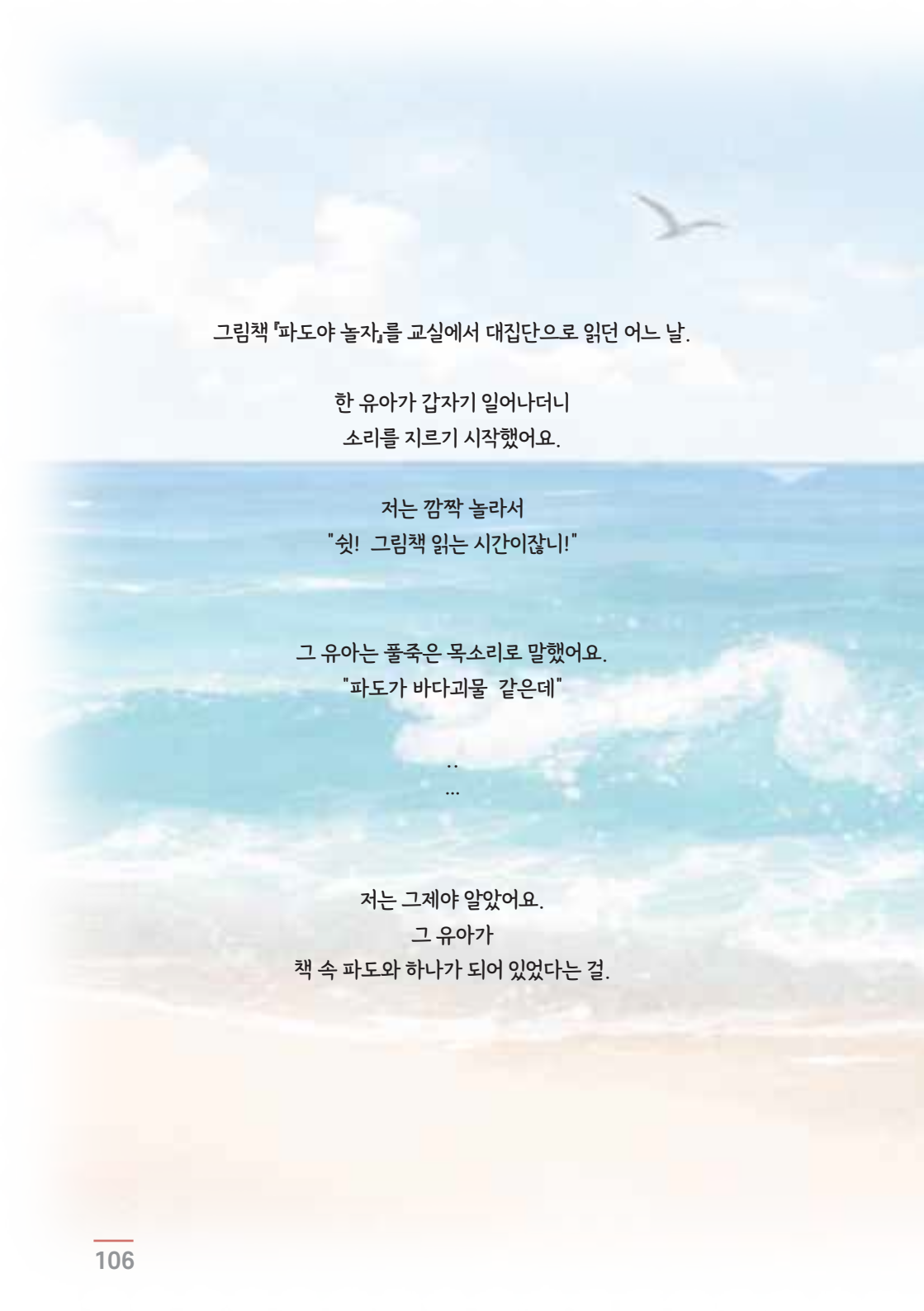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3장에서는 유아의 문학적 의미 구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책 대화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며
교사들은 유아가 그림책 속에서 문학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책 『파도야 놀자』를 교실에서 대집단으로 읽던 어느 날.

한 유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쉴! 그림책 읽는 시간이잖니!"

그 유아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도가 바다괴물 같은데"

..
...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 유아가
책 속 파도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걸.

교사로서 그림책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01

일곱 가지 교사의 역할

그림책 대화에서
교사는 다채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교사의 역할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나’라는 교사는
그림책 대화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스토리텔러



해석공동체
동료자



그림책 대화
격려자



그림책 대화
관리자



그림책 해석
가교자



그림책
큐레이터



문학적 안경
제공자



● 스토리텔러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은 그림책의 글을 읽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림책을 함께 보며
글자 읽어주기

글을 혼자서 읽을 줄 모르는 유아들을
위해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줍니다.

그림책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스토리텔링하기

이 때 스토리텔러로서의 교사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목소리와 감정 등의
표현을 통해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글·그림 | 스토리보울

교사는 유아에게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을 들려줄 때, 장수탕 선녀님과 주인공 소녀의 목소리를 다르게 읽어주었어요.

이렇게 교사가 다채로운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에 유아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사 (능청스러운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읽기] 겁먹지 마라, 애야. 나는 자~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날개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주원 선녀인데 목소리가 왜 이러지?

준서 할머니잖아.

주원 그래도 선녀라고 했잖아.

교사 장수탕 선녀님 목소리는 어떨까?

주원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할머니 목소리는 아니에요.

교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다시 읽기] 겁먹지 마라, 애야. 나는 자~기 산속에서 사는 선녀란다.

날개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스토리텔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글이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되는
의사소통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청중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며,
청중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재연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담아,
청중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목소리, 웃음, 눈빛, 숨소리 하나에도
교사는 귀 기울이며 그 순간에 맞게 이야기를 새롭게 빚어잡니다.**

이처럼 교사는 스토리텔러로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 읽음으로써
유아가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이야기에 반응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야기 그 자체보다, 이야기를 들려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의미가 큼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할 한 호흡

제 3 장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그동안
기계적으로
글을 읽어주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읽어줄까’를
고민해본 적 있나요?

●● 해석공동체 동료자

해석공동체 동료자로서의 역할은 유아와 함께 동등하게 그림책의 글과 그림에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며 해석하는 동료로서의 역할입니다.



유아와 함께 재미난
해석을 찾아 탐험하는
동료처럼 유아와 함께
의문을 품고 호기심을
나눕니다.

마치 동료 연극배우처럼
유아들과 상상의 세계를
펼치며 반응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대화에 참여합니다.



『파도야 놀자』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파도야 놀자』 그림책 대화에서
교사는 다음 장면에서 일어날 일을
유아들과 함께 예측해보았어요.
교사는 그림책을 해석하는 동료로서
과감한 추측을 시도해요.

준서 (얼굴 찡그리며) 메롱하다가
너 벌받을 수도 있어!

하준 너 옷 다 젖는다~

주원 어 파도가~!

준서 맞아! 절대
못도망가.

교사 (뛰는 흉내내면서)
엄청 빨리 뛰어서
도망갈 것 같아!



주원 아네요! 바다괴물이랑
못도망가요.

교사 그래? 아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상상해보는거지.

교사의 해석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유아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원 (살짝 웃으며) 진짜 다 젖었다.

교사 오! 주원이랑 준서 말처럼, 파도가 덮쳤네.

준서 봐봐요. 우리 말이 맞죠?

교사 응. 그래도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는 건 재미있었어.

※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림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동료자로서
유아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예측이 틀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지켜본

유아가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교사가 “나도 왜 그런지 궁금한걸?”,

“왜! 나도 깜짝 놀랐어!”와 같이

해석의 동료자로서 놀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또한 유아 그림책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교사는 해석공동체의 동료로서 유아와 함께 그림책을 해석하며
상호적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마음껏 추측하고,
자신의 추측이 틀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즉,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아와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해석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며,
문학적 의미 구성은 진정한 공동의 책임이 됩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할 한 호흡

교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파도야 놀자』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파도야 놀자』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선생님도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침묵하지 말고,
유아들과 함께 상상해보세요.

●● 그림책 대화 격려자

그림책 대화 격려자로서의 역할은 **유아를 칭찬하거나 유아가 반응을 계속 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격려하기

교사가 유아의 말을 존중하고
칭찬함으로써, 유아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격려합니다.

유아의 말과 반응 인정하기

가장 간단한 격려의 방법은 “아~”,
“그렇구나”와 같이 유아의 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유아가 한 말을
반복해서 말해주거나 조금 바꾸어 다시
말해주는 것도 격려의 방법입니다.





『수박 수영장』
안녕달 글·그림 | 참비

『수박 수영장』 그림책 대화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기발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아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하여 교사는 유아의 말을 반복하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정해주고, 칭찬으로 격려해줍니다.



하준 선생님,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저도 놀이동산 갔을 때 솜사탕 먹어봤어요!

교사 오, 솜사탕처럼 생겼다고? (책을 한 번 더 보고) 그래네(웃음).
그래서 하준이가 솜사탕 먹을 때가 생각났구나.

준서 아~ 나도 수박 수영장 가고 싶다.

주원 나도! 그럼 나는 수영하다가 배고프면 수박 바로 먹어야지!

교사 수박 먹는다고? 오! 그럼 정말 시원하고 좋겠는걸.

※ 그림책 대화 격려자로서의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교사의 격려의 말과 반응은 유아가 그림책 해석에 몰두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발한 해석과 상상을 펼치도록 돕습니다.
즉,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해석 세계를 탐험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할 한 호흡



“그림책을 읽는데, 유아들이 갑자기 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유아들이 막 웃어요!”

유아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는 반응이나 야단스러운 놀이적 반응이
때론 교사로서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
유아는 이야기와 자신을 연결하며
그림책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유아들의 반응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책 대화 관리자

그림책 대화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그림책 대화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유아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에 대답해보도록 합니다.

그림책 대화에서 지나친 혼란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 유아에게 기다리라고 하거나
누구부터 말할 차례인지 정해주기도 합니다.

다른 유아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어떤 것에
유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해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를 읽으며
유아들 사이에 시끌벅적한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사는 토의 과정의 혼란을 조절하고,
유아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그림책
대화를 관리합니다.



준서 (자신만만한 표정과 목소리로) 지도 보고 가면 되지!
(조금 생각하다가 놀란 표정으로) 그런데 지도가 없잖아?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지도 찾으면 되지~

주원 (준서를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물고기는 핸드폰 없어.

준서 (웃으며) 있으면 어떡할래!

주원 핸드폰이 있는 물고기는 세상에 없어.

준서 있어!

교사 잠깐만, 애들아. 소리만 지르지 말고... 주원이부터 얘기해봐.

주원 준서, 너 본 적 있어? 전 본 적 없어요. 물고기는 핸드폰 못해요.

준서 있어!

주원 거짓말 치지마.

교사 이번엔 준서 생각도 들어보자. 준서는 왜 있다고 생각했어?

준서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핸드폰을 바다에다, 바다에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교사 그랬구나. 준서가 말한대로, 큰 물고기가 핸드폰으로 작은 물고기를 찾아가는지 그림책에서 확인해볼까?

유아의 말을 끄는 것 같아
고민했지만, 과도한 논쟁을
줄이고 원활한 그림책 대화를
위해 필요했어요.

※ 그림책 대화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림책 대화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그림책 대화 중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혼란을 조절하며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사가 유아들의 토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할 한 호흡

제 3 장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교실에서
그림책 대화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의 모습은
비교적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관리'의 목적이
그림책 한 권을 얼른 읽어내고 싶은
교사의 욕심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진정으로
유아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 그림책 해석 가교자

그림책 해석 가교자로서의 역할은 **유아들이 나눈 해석을 연결해줌으로서** 유아의 그림책 해석을 끌어내거나 정교화 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유아들이 나눈 해석 연결해 주기

교사는 한 유아의 해석을 다른 유아의 해석과 연결해 주고, **유아들의 해석이 서로를 어떻게 지지하거나 확장하는지**, 또는 부연하거나 반박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림책 해석을 끌어내는 질문하기

교사는 유아의 생각이 더 풍부하게 드러나도록, 유아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깊이 탐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서로 관련 있는 부분 연결하도록 돕기

교사는 나중에 나올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 **글이나 그림에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지어 보여줍니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그림책 대화에서 유아들은 큰 물고기가 모자를 되찾은 과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이 나눈 해석을 연결해 주며 이야기의 의미 구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주원 어? (작은 물고기를) 먹었나 봐요!

하준 빠졌나?

교사 하준이는 왜 빠졌다고 생각했어?

하준 표정이 빠진 것 같아요. 모자 못찾아서 빠졌나 봐요.

주원 아니야. 위에 봐 봐. 모자 찾았잖아!

하준 아 그렇지! 정말 작은 물고기한테 모자를 빼앗은 게 맞나 봐!

교사 하준이는 큰 물고기의 표정을 보고 모자를 못 찾아서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주원이가 모자를 되찾은 걸 알려줘서 생각이 달라졌구나. 이제 하준이도 큰 물고기가 모자를 되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 그림책 해석 가교자로서의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준서 선생님, 먹어서... 진짜 모자 빼앗은 건가 봐요!

교사 주원이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했고, 준서는 그래서 그 모자를 다시 빼앗은 거라고 덧붙였네. 준서, 주원이는 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을까?

주원 없으니까요.

교사 작은 물고기가 안 보여서?

주원, 준서 네!

하준 저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교사 오, 하준이는 친구들 말을 듣고 보니, 더 커진 것 같아? 첫장을 확인해 볼까?

로운 로운이는 큰 물고기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며) 모자를 갖다준 것 같아요.

교사 아! 작은 물고기가 모자를 갖다준 것 같아~ 오! 친구들과 다른 생각이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수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유아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림책의 여러 해석에 있어
교사가 어느 하나를 위해
또는 그 하나를 향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정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지요.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시 바라볼 때,
의미는 조금씩 다듬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림책 대화 속에서 유아들은
다른 유아의 생각과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 도전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가족, 문화, 종교,
사회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배경 때문에
책에 대한 대화가 더 다채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들의 해석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실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림책 대화가 훨씬 풍부하고 활발하게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교사는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함께 의미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할 한 호흡



제 3 장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유아들의 해석이
서로 이어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과정을 위해
교사는 그 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책 큐레이터

그림책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은 책 저자 혹은 출판에 대한 정보, 수상이력, 파라텍스트 등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림책에서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특정 부분을 안내합니다.

책의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물관의 안내자처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석의 길을 안내해준다는 점에서
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닮아 있습니다.





『그림자 놀이』 이수지 글·그림 | 비룡소
책 낱개에 적힌 저자 및 저자의 그림책 정보

책에는 이야기 텍스트 외에도 겉표지와 속표지, 면지, 판형, 재질, 책낱개의 글, 출판 정보, 수상이력, 서평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싹오싹 당근!』 에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 홍연미 역 | 주니어RHK
면지의 저자 및 출판 정보



『이파라파 나무나무』 이지은 글·그림 | 사계절
뒤표지의 수상이력

그림책 큐레이터로서의 교사는

책에 담긴 다양한 정보와 구성 요소를 유아가 탐색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책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저자나 출판 정보, 시각적 요소까지 폭넓게 감상하도록 돕습니다.**

즉, 그림책 큐레이터는 독자가 책과 더 깊이 소통하며 풍부한 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나』 그림책 대화에서 교사는 면지의 그림과 작가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면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면지도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너와 나』

사이다 글·그림 | 다림

교사 여기 면지를 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앞면지

주원 (책을 가리키며) 왜 이렇게 동물이 많지?

하준 동물 가족들인가?

교사 그러게. 면지에 함께 있는 동물들이 보여.

주원 (책을 가리키며) 물소랑 새도 있고... 하마랑 거북이도 같이 있네.

준서 친구가 됐나? 같이 살고 있네.

교사 작가는 면지에 동물들을 왜 이렇게 그려놓았을까?



뒷면지

준서 어? 글자가 생겼네!

교사 앞면지는 그림만 있었는데, 뒤에는 글이 생겼네. 뭐라고 적혔나 볼까.
(교사가 면지에 적힌 글을 모두 읽는다.)

주원 아~ 알겠네! 얘네는 서로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잖아요.

※ 그림책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 할 한 호흡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준서 이건 뭐예요?

교사 이건 상을 받았거나 좋은 그림책으로 뽑혔을 때 표시하는 거야.

준서 왜 다른 책에는 없어요?

교사 책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책은 2011년에 뉴욕이라는 곳에서 좋은 그림책 10권 중 한 권으로 뽑혔던 책이라는 뜻이야.

준서 ...



그린이: 박준서(4세)

준서에게는
그림책의 작은 정보 하나조차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문학적 안경 제공자

문학적 안경 제공자로서의 역할은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에 새로운 개념이나 해석, 문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문학적 안경’이란, 유아들이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학적 안경 제공자로서의 교사는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에 유아에게 적절한 문학적 지식을 제공합니다.

유아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거나 더 발전시키도록 지원합니다.

그림책 대화를 마무리할 때, 유아들의 반응과 의견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역할도 포함합니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그림책 대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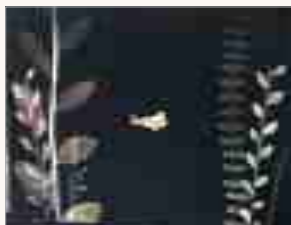
유아들은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왜 모자를 갖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문학적 요소인 '상징'의
개념을 소개하며, 모자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유아와 함께 탐색하고 문학적 이해를
넓혀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희 역 | 시공주니어



- 로운** 물고기는 모자를 좋아해요?
주원 진짜 물고기는 모자 안 써.
준서 모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웃음)
교사 그렇게. 주원이 말대로 진짜 물고기들은 모자를 쓰지 않아.
 그런데 이 책 속 물고기들에게 모자는 어떤 의미이기에,
 작은 물고기는 가져가고 싶어 하고,
 큰 물고기는 되찾고 싶어 하는 걸까?

- 로운** 예쁘게 생겨서?
주원 나처럼 머리 안 감았나?(웃음)
준서 자기만 모자가 없으니가요.

교사 그래. 주원이 생각처럼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일 수도 있고,
 로운이 생각처럼 아름다울 수 있고,
 아니면 준서 생각처럼 갖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어.
 그래서 책 속에서 '모자'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진 특별한 것, '상징'이 될 수 있어.
 상징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교사가 문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적절한 순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 문학적 안경 제공자 역할은 파란색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배움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미리 계획할 수 있을까요?

배움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유아의
반응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기
전에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읽는다면,
그림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유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
과정을 통해 통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적절하고 세심한 도움을 주면,
유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학적 해석을 하는 시너지를 얻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유아의 반응과 해석을 경청하며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새로운 개념이나 해석, 문학적 이해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무척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지만,
유아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문학적 해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잠시 멈추어
성찰할 한 호흡

제 3 장

그림책 대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문학적 안경을 건네는 교사는,
‘가르침이 가능한 순간’
유아에게 문학적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자신의 도움이
유아의 해석을 이끌어내는 예리한 자극이 되고 있는지
해석을 대신해 주는 개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림책 속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교사의 역할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김 교사의 『오싹오싹 당근!』 그림책 대화를 깊이 들여다 볼까요?

스토리텔러



해석공동체
동료자



그림책 대화
격려자



그림책 대화
관리자





『오색오색 당근!』

에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 홍연미 역 | 주니어RHK

- 교사** [읽기] 오색오색 당근! 에런 레이놀즈 글, 피터 브라운 그림. **#스토리텔러**
- 주원**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 교사** 맞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쓴 이야기와 그림을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옮긴 거야. **#그림책 큐레이터**

※ 대화록에서 [읽기]는 책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책 해석
가교자그림책
큐레이터문학적 안경
제공자



교사 [읽기] (작은 목소리로) 그날 밤, 재스퍼가
이를 닦고 있는데...

(깜짝 놀라며) 으악, 저건!

#스토리텔러

유아들 어?

교사 [읽기] 재스퍼는 고개를 책 돌렸어요.
(한 호흡 쉬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재스퍼는 애써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칫솔을
주웠어요.

(빠른 목소리로) 그런 다음 부리나케 침대로
달려갔지요.

#스토리텔러



하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근 어디 갔어?

로운 사라졌나 봐.

준서 어디 갔지?

교사 어? 당근이 진짜 어디로 간 거지? **#해석공동체 동료자**



주원 음... 저기 저 물건들로 변신했나 봐요.

교사 오! 당근이 물건으로 변신했다고? **#그림책 대화 격려자**
주원이는 변신한 걸 어떻게 안 거야? **#그림책 해석 가교자**

주원 (책 속 당근과 주황색 물건들을 번갈아 가리키며) 여기 봐 봐요!
색깔이 같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주황색!

준서 아! 그렇네! 주황색이다!

교사 오! 주원이 말대로 정말 색깔이 같네. **#그림책 대화 격려자**

로운 (웃으며)저 길쭉한 당근이 삼푸통이에요.

하준 아 뭐야! 변신 당근이었네!

교사 너희들 모두 주원이 생각처럼 당근이 물건으로 변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림책 해석 가교자

유아들 네!

(중략)



교사 [읽기] (큰 소리로 외치며) 으악! 오싹한 당근이다! 아빠! 아빠! 재스퍼가 소리쳤어요. 아빠는 재스퍼 방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얼른 불을 켜어요. **#스토리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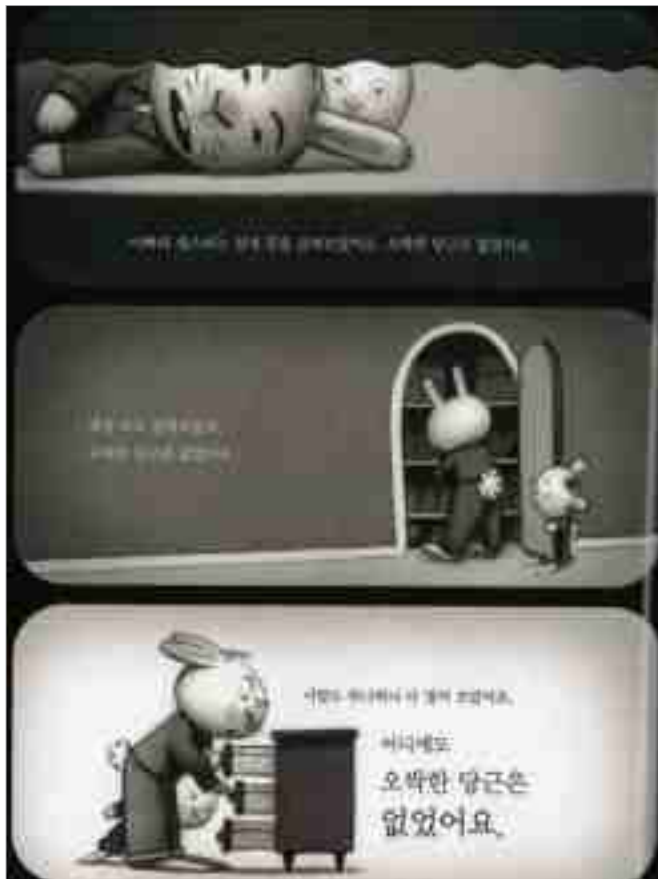
준서 아! 진짜! 저기 있잖아! 저기 토끼 바구니!

하준 또 변신했네! 오싹오싹 당근아~

준서 저기 있다고요! 아빠!

교사 자~ 그럼 이제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다음 장면을 볼까?

#그림책 대화 관리자



교사 [읽기] 아빠와 재스퍼는 침대 밑을 살펴봤어요.
(한 호흡 쉬고) 오싹한 당근은 없었어요. **#스토리텔러**

준서 (화를 내며) 아까 거기 방에 있는데 으휴!

교사 준서 목소리를 재스퍼와 아빠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웃음)
#그림책 대화 격려자

준서 (손으로 양볼을 감싸고 소리지르며) 방에!



교사 [읽기] (웃으며 큰 목소리로) 야호! 야호! 야호! **#스토리텔러**

준서 앵? 같았는데, 당근들이 왜 좋아해?

교사 [읽기] (신난 목소리로) 당근들의 오싹오싹 계획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렇고말고요, 이제 토끼 재스퍼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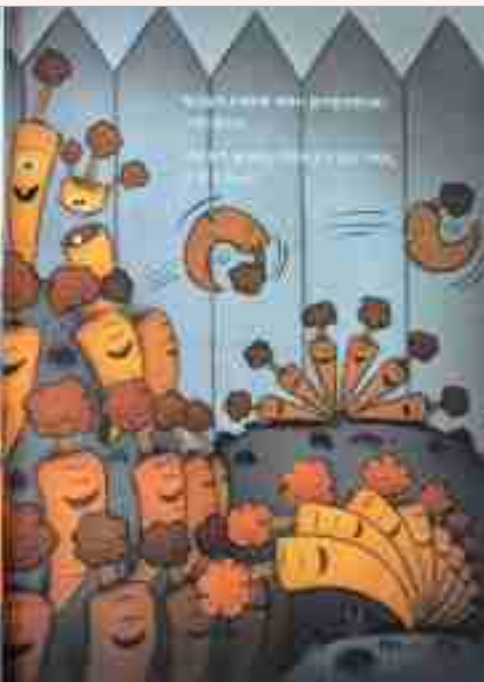
(강조하며)두 번 다시는요! **#스토리텔러**

주원 (허탈한 웃음 소리와 함께)당근들이 계획한 거야?

교사 계획한 거래. 오싹오싹 당근들은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그림책 해석 가교자**

준서 아~ 자꾸 먹어서?

주원 그래서 못들어오게 하려고?



교사 (준서를 쳐다보며) 재스퍼가 오싹오싹 당근을 자꾸 먹어서,
(주원이를 쳐다보며) 재스퍼가 못들어오게 하려고! **#그림책 해석 가교자**

하준 (바닥을 탁 치며) 헐~

주원 재스퍼 속았네!

교사 선생님도 속았다. 당근들이 감했다고 속상해 할 줄 알았지. **#해석공동체 동료자**

하준 선생님, 저도요.

주원 우리가 속은 거예요.

교사 그러게. 그게 바로 '반전'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흐름이 다르게 흘러갈 때 '반전'이 있다고 말해.
#문학적 안경 제공자

주원 반전?

준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근 똑똑하네.



주원 여긴 글자가 많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교사 이 그림책 이야기를 쓴 사람과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
이 밑에는 이 책이 만들어진 날짜랑 이 책을 출판한 정보가 적혀 있네.

#그림책 큐레이터

주원 읽어 주세요.

교사 [읽기] 에런 레이놀즈는 ...(중략)...

잘못 만들어진 책은 이 책을 산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스토리텔러**

앞면지



뒷면지

로운 (뒷면지의 오색오색 당근을 가리키며) 오색오색 당근!

주원 어? 아까 앞에도 있었나? 선생님 앞에 다시 봐 봐요. (앞면지를 다시 확인한다.)

교사 (앞면지와 뒷면지를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어떤 것이 달라졌어? **#그림책 큐레이터**

주원 (웃으며) 왜 당근이 웃고 있지?

준서 계획을 성공해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아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는다면

하나의 이야기에도
유아들의 무수한 해석과 자유로운 상상으로
시끌벅적한
교실이 될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에 여러 의미가 담기는 것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유아들의 여러 해석에 있어
교사가 어느 하나를 위해 또는 그 하나를 향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책의 다채로운 즐거움, 모호한 느낌,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 같은 다양한 요소를
유아들과 함께 나눌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권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

연구책임자

서윤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집필진

권의재 (세종 산울유치원 교사)

김다혜 (세종 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은정 (호원대학교 교수)

김채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박은정 (경기 평택고덕유치원 교사)

박은화 (충북 더샵해봄어린이집 교사)

오아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윤미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과정)

이예슬 (대전 대전삼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전치우 (충남 조양유치원 교사)

정지영 (서울 상도유치원 교사)

조은별 (대전 대전상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상 가나다순>

연구협력관

송은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

송상희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

펴낸 날 2025년 12월 31일

펴낸 곳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이 책을 무단전제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56-7430362-100002-01

그림책 놀이 이해자료

그림책과 유아,
다시 깊게 새롭게 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